



더 자스민 일보(一步)

독자의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♡



- “[밑줄 클릭](#)”만으로 본문 열람 가능합니다 -

Since 2020

아 시댁 가고 싶다... 유유.



“작가님, 더위 먹었어요?” 여기저기 열사병을 걱정하는 십만 머느리대군 목소리가 들려온다. 그래서 답을 한다. 올 여름, 내 내 작업실에 간혀 지내다 커피숍 가는 날엔 냉동인간이 되기도 한, 나는 쿨(cool)하고 칠(chill)합니다.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로 진심 다해 외치는 말이라는 것이다. 터키행을 고대 한 지난 6월부터 였으리라. 시댁에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. 저 멀리 지중해와 곁들여 사는 나라 ‘튀르키예(구 터키)’가 그리워 오늘도 여행 유튜브를 뒤적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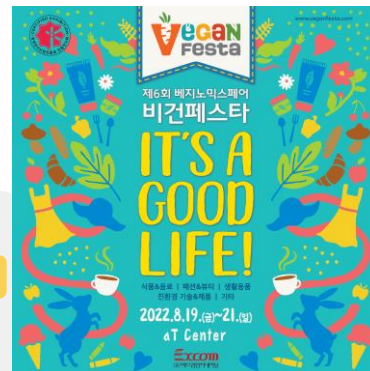
작년 6월 터키에 지내며 거기 두고 온 것이 많다. 파랑과 선명한 이스탄불, 하루 한 번 사 먹던 이르믹 헬바스, 눈짓 몸짓으로 통하던 나의 가족. 터키 엄마, 아빠 그리고 시누 예르바. 항공사 협찬을 기다리고 있건만 아직 이 글을 읽지 못 한 듯 하다. 이제라도 열람하길 바라며 010-....



작가란 작가만의 언어로 만물과 '통(通)'하는 자 이거든요.

출처: 손은경 글방

공익 광고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나의 글, [손은경 글방](#) 광고입니다.



지난 7월, 낯선 남자에게서 카톡이 왔다.안녕하세요. 〇〇입니다. 당신을 비건 페스타 강연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. 부디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(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것). 통화 끝 기꺼운 마음으로 승락을 했고 그렇게 나는 무대에 서게 되었다. 듀근 반 세근 반. 놀러 오세요.

* 관련 썰: [비건](#), [소수로 산다는 것](#)

새 활동 소식 : 무제(無題)

글쓰기는 9회말 2아웃



글로 그리는 작품

제목은 없습니다. 떠오르는 대로 그려 나갈 것이라 말입니다. 그래서 없을 무에 제목 제자를 붙여 ‘무제’입니다.

할 말이 좀 많았던지 카톡 나와의 대화는 설 새 없이 쌓여만 가 어디 해소할 곳이 필요했습니다. 좀 멋지다거나 흠좀 쎄찮은 생각이라서요. 나는 아무래도 써야했던 사람인가봅니다.

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임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. 나보다, 내 글에 대한 마르지 않은 애정 부탁드립니다.

*[브런치 시리즈](#) : 무제 보러가기

자매품 - [시리즈 “지요”](#)



제6회 비건 페스타에서 강연합니다

- 주제 : [우리의 비건 분투기\(고기 끊기가,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\)](#)
- 날짜 : 2022.08.19(금) 오전 11시 ([자세한 사항은 요기 클릭](#))

